

ATPIII의 진단기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관련위험요인 분석

임열리, 황승욱*, 심현준, 오은혜, 장유수,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교실

배경: 2001년 발표된 ATPIII는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진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이와 연관된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중에서 신체계측치와 혈액검사수치가 누락되거나 혈압강하제와 혈당조절제 외 다른 약물을 상용하는 수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 3,873명(남자 2,144명, 여자 1,729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복부비만의 진단기준으로 각각 ATPIII 허리둘레기준과 아시아/태평양 허리둘레기준, 체질량지수(BMI 25 kg/m²)을 적용하였으며 직접포준화법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연령보정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허리둘레기준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별/연령군에 따른 진단기준별 유병률을 산출하였고 연령군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성별 유병률을 산출하였다.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이 추정되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다변량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사증후군의 연령보정 유병률은 각각 ATPIII 허리둘레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9.3% (남자 9.4%, 여자 10.0%), 아시아/태평양 허리둘레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5.4% (남자 16.9%, 여자 14.2%), 체질량지수(BMI 25.0 kg/m²)를 적용하였을 때 18.6% (남자 24.1%, 여자 12.4%)였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별 유병률은 남성에서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복부비만, 고혈당,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순서로 낮아졌고, 여성에서는 고혈압, 복부비만,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혈당 순서로 낮아졌다. 남성에서는 30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여성에서는 50대에서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60대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여성인 경우, 고령인 경우,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나 경도의 음주를 하는 경우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았다.

결론: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아시아/태평양 허리둘레를 적용하였을 때 15.4%로서 미국의 22.0%에 비하면 낮지만 비교적 흔한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연령이 높을 때, 높은 체질량지수(BMI)를 보일 때, 현재흡연자, 비운동군, 고도음주자일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사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선별 및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유병률, 나이, 체질량지수